

CJ제일제당, 바이오제품 기술 유출

퇴직 압박에 핵심기술 경쟁사로 ... 라이신·핵산 피해액 110여억원

CJ제일제당의 바이오제품 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를 영업비밀 자료 등을 빼내 경쟁기업으로 옮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7월 해외공장 생산현황 등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과 바이오제품 생산 정보를 경쟁기업인 B산업에 넘기고 곧바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맡은 분야의 사업성과가 미미해 퇴직 제의를 받자 회사를 옮기게 될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밀자료들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김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 과거 3년간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제품의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것도 있어 피해액만 11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7>